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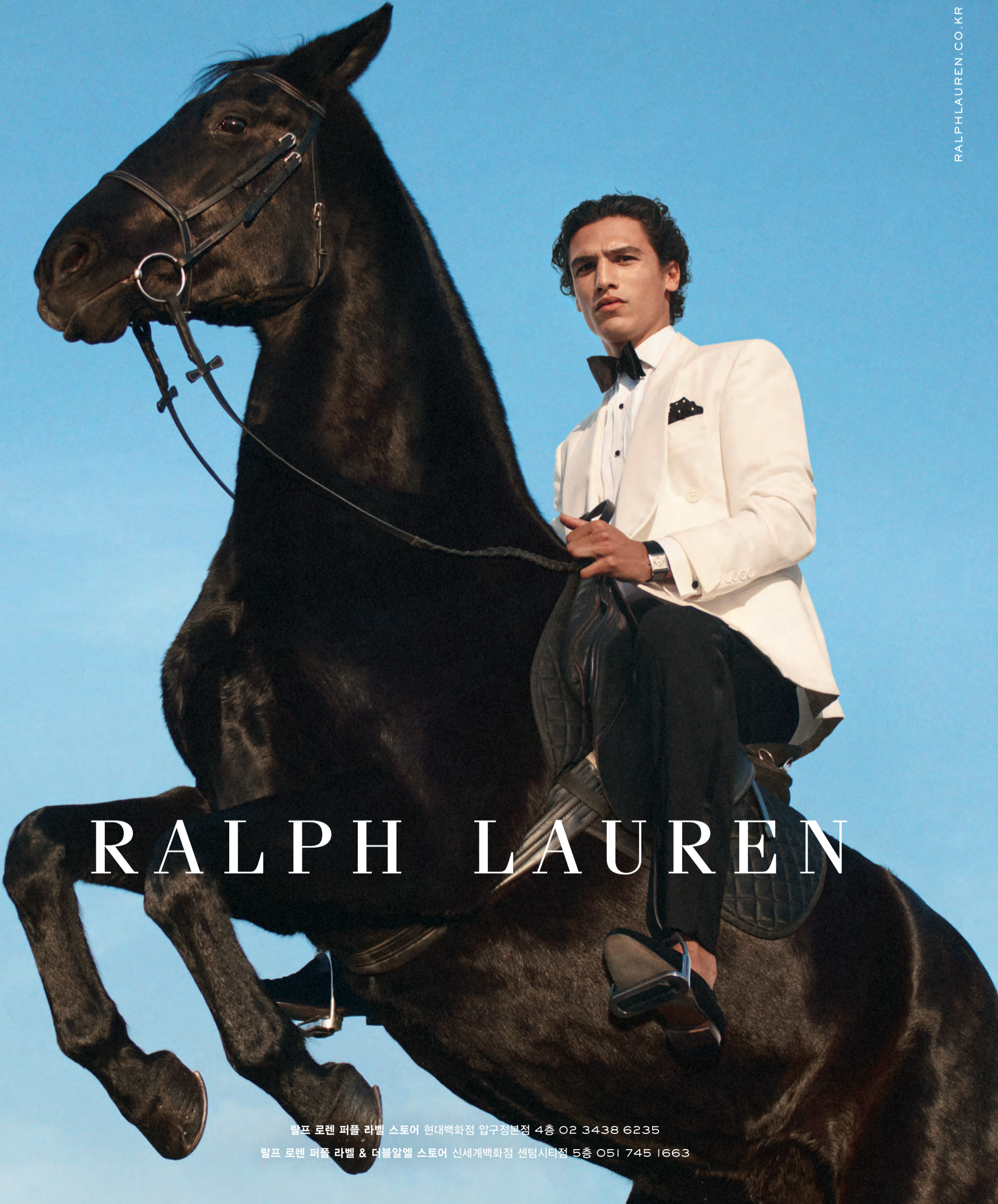
MAY 2026
vol. 303

Style 1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Give a gift!

RALPHLAUREN.CO.KR



RALPH LAUREN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스토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층 02 3438 6235

랄프 로렌 퍼플 라벨 & 더블알엘 스토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5층 051 745 1663



SUBLIMAGE LA CRÈME

피부 활력과 송고한 광채를 깨우는 궁극의 스킨케어

바닐라 플라니폴리아는 수블리마지 스킨케어 리추얼의 핵심 원료로, 어둠 속에서 자라 새벽의 빛과 함께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꽃입니다. 수블리마지 라 크렘의 핵심 성분,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는 피부 활력을 일깨워 줍니다. 피부는 활력을 되찾아 매끄러워지며 송고하게 빛납니다.

CHANEL

THERE IS ETERNITY IN EVERY BLANCPAIN

The value of authenticity.

Villeret
Collection



Atelier Tourbillon, Blancpain - Le Brassus

A Villeret is for eternity.

Featuring an endless array of watchmaking's most fascinating complications, the Villeret bears authentic testimony to the talent of our watchmakers. Essentials imbued with timeless elegance.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RED, ONLY RED,
NOTHING BUT RED

ROUGE CASAQUE
BEAUTY IS A GESTURE



טומו טומו

Contents

- 12_ **SELECTION** 품격 있는 클래식 승마 룩과 바다 위 오토 선상에서 빛을 발하는 쿨한 서머 에센셜 룩.
- 15_ **THE BEST OF DESK** 정교한 만년필과 필기구, 감각적인 오브제가 어우러져 일상에 취향을 부여하는 데스크 신.
- 16_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8_ **홍콩에서 마주한 창조의 유산** 지난해 타계한 프랭크 게리(Frank Gehry)와의 20여 년간 이어온 협업을 기리며 루이 비통이 ABHK 2026에서 선보인 회고형 부스를 열었다. 파리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을 통해 그의 건축 세계와 처음 조우했던 기억이 겹치면서,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 이상의 존재감으로 다가왔다.
- 20_ **AI와 함께하는 일상, 그 관계의 역학을 묻다** 타이중 국가극원(NTT)의 '이머징 아티스트 프로젝트(Emerging Artists Project)'로 선정된 레이쯙(Ray Tseng)과 흥치엔한(Hung Chien-han)의 공동 연출작 <As One>은 동시대 기술을 둘러싼 익숙한 친반 구도를 벗어난다. 오는 5월 중순, NTT에서 막을 올릴 <As One>을 타이베이에서 열린 리허설을 통해 미리 만나봤다.
- 21_ **지금 우리에게 데이미언 허스트 개인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1990년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YBA(Young British Artists) 주축 작가인 데이미언 허스트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이 서울에서 진행 중이다.



32



24



랄프 로렌에 있어 스포츠는 단순한 게임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념할 줄 아는, 서두르지 않는 랄프 로렌만의 삶의 방식. 이를 기념한 2026 스포팅 캠페인 'A Sporting Life'를 선보인다. 클래식 스포츠의 역동적 에너지와 세련된 우아함으로 완성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메리칸 럭셔리 스타일을 만나보자. 문의 02-3467-6560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16

- 22_ **EFFORTLESS TIME** 실용성과 편리함 덕분에 한때 기계식 워치를 위협하기도 했던 쿼츠 워치의 매력.
- 23_ **A MUSE OF GRACE** 티파니앤코(Tiffany & Co.)가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이자 프로듀서, 감독인 나탈리 포트만(Natalie Portman)을 하우스 엠베서더로 선정했다.
- 24_ **A LEGACY IN MOTION** 에르메스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고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쇼 에르메스(Saut Hermès)'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랑 팔레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열기는 럭셔리 혹은 브랜드 그 이상의 가치에 감동하며, 내년을 기다리게 만든다.
- 26_ **GET THE LIST** 소중한 순간을 의미 있게, '함께라서 빛나는 5월의 셀렉션'.
- 28_ **SWEET KICKS** 발에 밀착되는 로 컷 디자인, 핑크와 레드에서 그린으로 이어지는 컬러 라인업과 화려한 프린트. 이번 시즌 스니커즈는 편안함과 우아함, 개성을 동시에 담아 스타일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 29_ **THE PERFECT GIVING** 특별한 순간을 더욱 품격 있게 완성해줄 발리(Bally)의 기프트 셀렉션.
- 30_ **PICK ME UP** 패키지에 마음을 뺏기고 제품력에 또 한번 감동하는 뷰티 셀렉션.
- 31_ **아름다운 힘의 원천** '건강한 미학'을 이야기하는 브랜드 ICD의 근간, 리만필라지. 그 중심에는 오직 이곳에서만 재배되는 자이언트 병풀™이 있다.
- 32_ **THE GIFT IDEAS** 주고받는 기쁨으로 가득한 5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프트 셀렉션.
- 42_ **EDITOR'S PICK** 완벽한 봄 날씨에 어울리는 향수부터 피부의 겉과 속을 채워줄 스킨케어,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과 산뜻한 마무리를 더하는 차약까지. 편집부 에디터가 엄선한 뷰티 리스트.



© GRAFF.COM



카프 스킨 소재의 턱 끈과 헤드를 보호해줄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Eole II 승마용 헬멧 가격 미정 **에르메스.**



편칭 디테일이 돋보이는 승이지가죽 소재의 크로스 백, 19.5×12×5cm, 1백39만원 **발리.**

자물쇠 모터브의 독특한 루프 장식을 더했으며,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더블 스테이크 체인을 갖춘 까대나 워치 4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용맹한 말의 모습을 크리스탈로 제작한 아시아인 심볼스 리빙 호스 1백15만원 **스와로브스키.**



하이넥 스타일의 셔츠와 피티드한 더블브레스트 재킷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라운드 실루엣과 브라운 그레데이션 렌즈가 어우러진 프라다 아이웨어 선글라스 68만원 **프라다.**

가죽 승마 용구에서 손을 보호해줄 부드러운 스페이드 소재의 글러브 80만원 **지안비토 로시.**



골드 톤 메탈 소재로, 백 플랩이 열리는 손가락 모터브로 디자인한 스몰 이브닝 백, 12.5×11×8cm, 가격 미정 **샤넬.**



18K 로즈 골드 소재에 총 2.6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더한 핀나 브레이슬릿 2천6백 90만원 **포멜라토.**



for her Selection

구조적인 재킷과 팬츠, 장인 정신이 깃든 레더 부츠와 액세서리, 그리고 골드 톤 주얼리로 완성한 품격 있는 클래식 승마 룩.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 YOUTAE



참을 달 수 있는 고리 디테일이 돋보이는 승이지가죽 소재 벨트 1백39만원 **미우미우.**



블랙 카프 스킨으로 제작해 어떤 환경에서도 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비브 라이딩 메탈 부츠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아이코닉한 로고 패턴을 가미한 오가닉 실크 스카프 스트랩치 21만원 **MCM.**



팬츠 하단의 벨트 디테일로 활동 시 다리에 밀착되도록 조절 가능한 팬츠 1백59만원 **이자벨 마랑.**

MCM 1600-1976 **그라프** 02-2256-6810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포멜라토** 02-3143-9486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루이 비통** 02-3432-1854 **미우미우** 02-541-7443 **발리** 02-2163-1122 **샤넬** 080-805-9628 **에르메스** 02-542-6622 **이자벨 마랑** 02-516-3737 **지안비토 로시** 02-3479-6129 **프라다** 02-3442-1830

에디터 신영희 스타일리스트 이윤은

REJUVENATING BOOSTER SHOT

M.D. SERUM

리쥬브네이팅 부스터 샷 엠디 세럼



Rejuvenating Booster Shot
M.D. Serum
Sérum Booster Shot
M.D. Rajeunissant

피부와 스킨 부스팅 관리¹ 그 이상²의 물광 리프팅 세럼

¹건강한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의 의미 ²스킨부스팅 특수 케어 1회와 AP세럼 사용 3일 후 비교 결과, 수분/장벽 개선 우수



한지 혼방 소재로 가볍고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반스매 스웨터 폴로셔츠 23만9천원 라코스테.

스포티한 무드를 선사하는 블루·화이트·레드·블랙 컬러 케이틀과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스텐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프렌드.



for him Selection

가벼운 니트와 쇼츠, 라피아 모자와 턴티드 선글라스까지. 청량한 컬러와 실용성을 갖춘 아이템으로 완성한, 바다 위 요트에서 빛을 발할 쿨한 서머 에센셜 룩.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 YOU TAE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보드에 확장형 구조를 적용해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4輪 패킹 케이스 캐리어. 51×76×26cm, 1백55만원 투미.



스트로 소재로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베토로 햇 로로피아나. 1백94만원.

그라데이션 비세토스 캔버스가 돋보이는 손목 스트랩 파우치 83만원 MCM.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MCM 1600-1976
그라프 02-2256-6810 로로피아나 02-3442-1830
부세론 02-3479-6028 불랑팡 02-3479-1833
투미 02-539-8160 프렌드 02-514-3721 라코스테 02-979-5930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로에베 02-3479-1785 루이 비통 02-3432-1854 발리 02-2163-1122 펜디 02-544-1925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피프티 퍼셉츠 오토매틱 45mm 가격 미정 블랑팡.



18K 옐로 골드와 사파이어가 어우러진 트리 컬러 링 1천6백60만원 반클리프 아펠.



세일러 룩을 입은 강아지 모티브에 위트 있는 디테일로 경쾌한 포인트를 완성한 이트 참 1백30만원데 펜디.



라피아 소재로 완성한 기하학적인 구조가 돋보이는 XL 퍼플 폴드 토트백. 33×40×17cm, 3백20만원 로에베.



골드 톤 프레임과 다크 그린 렌즈로 완성한 LV 에디티드 파일럿 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바니시 처리한 카프 스킨 소재로 클래식한 무드를 더한 피셔맨 샌들 1백65만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해 화살 모티브의 입체적인 구조감을 강조한 플래쉬 링 5천40만원 부세론.



코튼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쇼츠 93만원 발리.



에디터 신정민 / 스타일리스트 이은은



The Best of Desk

정교한 만년필과 필기구, 감각적인 오브제가 어우러져 일상에 취향을 부여하는 데스크 신.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로마숫자와 아라비아숫자가 어우러진 독특한 다이얼이 돋보이며, 핸드메이드 가죽 스탠드를 더한 브레넌 클락 1백80만원 랄프 로렌 홈. 문의 02-6004-0221. 둥근 실루엣의 상단 전등갓으로 눈부심 없는 빛을 연출하는 핀델라 포터블 160 크롬 49만1천원 루이스폴센. 문의 031-5174-7829. 송진과 허니가 조화를 이루는 은은한 향으로 공간을 포근하게 만들어줄 클래식 캔들 시프래 190g 10만2천원, 오르페움 제프 바에서 피어오르던 담배 연기를 추상적인 패턴으로 제작한 믹스드 클레이 데코 컬렉션 클래식 캔들용 랜드스케이프 리드 10만9천원, 스탠드 10만9천원, 트레이 S 12만7천원 모두 덤티크. 문의 02-3446-7494. 미스터리 블랙 병 잉크 60ml 4만4천원, 마이스터스틱 로미오와 줄리엣 두에 르그랑 만년필 2백96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1877-5408. 전 세계 도시에서 영감받아 선보이는 조터 글로벌 아이코닉 에디션 서울 8만원대 파카. 문의 02-554-0911. 블랙 보디와 골드 코팅 캡의 조화로 1985년에 출시한 워터맨의 헤리티지 모델 '맨 100 오페라(Man 100 Opera)'의 상징적인 패턴을 새롭게 해석한 오페라 컬렉션 엑스퍼트 디렉트 블랙 & 골드 GT 만년필 가격 미정 워터맨. 문의 02-554-0911. 골드 톤의 정교한 보디와 납 디테일이 돋보이는 모노그램 1872 만년필 2백만원대 에스티.듀몽. 문의 02-2106-3400. 메종의 상징인 펜대를 담은 블루 아라베스크 모티브의 펜더 드 까르띠에 노트북 40만원대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우수한 쿠셔닝과 통기성, 환경에 따라 사운드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춰 최적의 청취 경험을 제공하는 베오플레이 H100 센츄리 브라운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 2백60만원대 뱅앤올룹슨. 문의 02-518-1380. 루이 비통의 미묘한 골드 소재의 '사마칸드(Samarcande)' 체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신정민

INSIGHT



Reflections of Spring

완연한 봄과 어울리는 단 하나의 주얼리를 고르다면 사별의 스타드 이어링을 꼽을 수 있다. 마티유 블리지가 디자인한 이 주얼리는 빛이 반사되는 순간을 형상화한 듯,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그리고 만개한 꽃이 피어오른 듯 유려한 실루엣을 드러낸다. 메탈로 기본 구조를 잡고, 그 사이사이를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채워 획일적이지 않은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Perfect in Precision

정밀한 시간 측정에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워치메이커 오메가가 또 한번 정밀성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역사적인 컬렉션을 출시한다. 2023년 설립된 측정 연구소 프리시전 레퍼토리에서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최초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획득 후, 1952년 오메가 최초 양산형 크로노미터 컬렉션 컨스텔레이션의 계보를 잇는 컨스텔레이션 울저버트리 컬렉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52년부터 정밀성에 대한 오메가의 철학을 상징해온 컨스텔레이션의 DNA를 담았으며, 총 9종의 레퍼런스도 선보인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8915 그랜드 렉스와 렉스 버전, 칼리버 8914로 선보이는데, 각 무브먼트에 맞는 소재와 디테일로 완성했다. 놀라운 기술력을 적용한 컨스텔레이션 울저버트리 컬렉션으로 오메가의 헤리티지를 느껴보자. 문의 02-6905-3301



Pink, Poured

가볍게 스머드는 핑크 톤과 글로시한 텍스처로,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얼굴에 생기를 더하는 립.



(왼쪽부터 차례대로) 나스 애프터글로우 섹슈얼 사인 립스틱 퍼스트 무브 부드럽게 스머드는 텍스처로 입술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하는 밀키 핑크 컬러 립 1.5g 4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샹테카이 플라밍고 립 시크 카무카무 밝은 오키드 컬러로 선명한 발색을 완성하며, 플라밍고 모티브 케이스가 감각적인 포인트를 더한다. 2.5g 8만7천원대, 문의 070-4370-7511 프라다 뷰티 리플렉션 글로시 리퀴드 밤 P255 바주얼 핑크 소프트한 무드 톤이 입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볼륨감을 더한다. 8ml 6만5천원, 문의 080-835-0097 크리스찬 디올 뷰티 디올 어딕트 립스틱 #212 & 디올 어딕트 립스틱 팩션 케이스 튜브 리플 가능한 아이코닉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는 디올 어딕트 립스틱, 재스민 플로럴 왁스 성분을 담아 맑은 광택과 생기 있는 컬러를 선사한다. 3.2g 5만8천원대, 케이스 4만9천원, 문의 080-342-950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Voluminous Brilliance

탁월한 창의력과 정교한 기술로 대표 이탈리아 주얼러로 자리 잡은 메종 다미아니(Damiani), 대표 컬렉션 중 하나인 미모사(Mimosa) 컬렉션은 세밀하고 디테일한 세팅 기법으로 실제보다 더 풍성하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곳곳이 꽃을 피우는 식물 미모사에서 영감받아 강인한 여성상을 그려내 의미 또한 깊다. 이번엔 선보이는 링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완성했으며, 다양한 컷의 스톤을 세심하게 세팅해 높낮이 차이, 빛과 그림자의 조화로 볼륨감을 부여함으로써 완벽한 모자이크를 완성한다. 이러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생동감과 입체감이 자아내는 찬란한 광채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2-6204-1924



Classic in Carry

클래식 카에서 영감받은 랄프 로렌 컬렉션의 '더 랄프' 미니 크로스 보디 백을 소개한다. 정교한 장인 정신을 토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의 맛이 느껴지는 폴그레인 새들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했으며, 내부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안감으로 마감해 완성도를 높였다. 브랜드 로고를 새긴 메탈 플레이트 키 링과 넉넉한 내부 수납공간이 특징이며, 간결한 톱 핸들과 더불어 탈착 및 길이 조절이 가능한 크로스 보디 스트랩을 갖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화이트, 블랙, 레드 등의 컬러로 출시된다. 2백80만원대, 문의 02-3467-6560



Timeless Blue

피아제가 '폴로 시그니처 데이트'에 새로운 라인을 추가했다. 1979년 이래 꾸준히 사랑받아온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다이얼의 가드룬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블루 다이얼이 대표적이며, 크게 두 가지 사이즈로 선보인다. 먼저 폴로 시그니처 데이트 42mm는 스틸 또는 로즈 골드 케이스로 선보이며, 교체 가능한 러버 스트랩이나 스틸 브레이슬릿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보다 작은 사이즈인 36mm 은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케이스, 인덱스와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모두 세팅한 스틸 케이스 등 화려한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모든 제품에는 메종을 상징하는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장착해 기술적 정교함과 고유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77-4275



Puffy Summer Code

몽클레르가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피피 서머(Puffy Summer)' 캠페인을 공개했다. 캠페인에는 배우 제이미 도넬이 참여해 특유의 오리로 컬렉션을 소화하며, 문어와 고래, 플라밍고 등 위트 있는 동물 오브제와 어우러져 경쾌한 무드를 더한다. 이번 컬렉션은 단순한 계절 제안을 넘어, 볼륨감 있는 형태와 레이어링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의 마력을 한층 높여 경쾌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부드럽고 조형적인 실루엣 위에 선명한 컬러와 경량 소재로 기능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나일론과 코트, 라이트 다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계절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워드루브를 제안한다. 문의 0030-8321-0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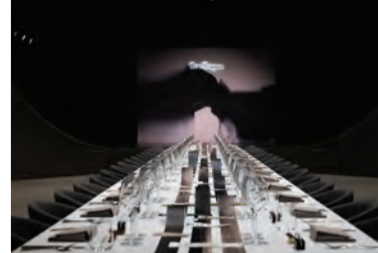
CHAMPAGNE

'하모니'의 마법

시간의 예술 속에서 빛어질 듯 페리뇽의 빈티지를 새롭게 맞이하는 경험은 그저 '테이스팅'이라고 하기엔 기대 섞인 긴장감까지 자아내곤 한다. '안배일령'의 순간을 펼쳐낼 공간 선정부터 음파, 피모먼스, 그리고 미식 페어링에 이르기까지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섬세하게 재단한 감각적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돔 페리뇽 빈티지 2017,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 그리고 로제 빈티지 2010을 선보인 올별 행사의 무대는 서울 밤하늘의 풍경이 사뭇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마포의 문화비축기지. 과거 석유 저장 탱크였던 곳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육종하고 거친 질감과 시간의 흔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자연의 요한 양상을 자체가 돔 페리뇽이 추구하는 '하모니의 마법'과 결이 맞닿는 듯하다. 우선, 돔 페리뇽과의 독대라고 할 수 있는 '솔로 테이스팅' 세션. 저마다 우선 헤드셋을 착용한 채 서서 나만의 테이블을 바라보노라면 음악을 배경으로 정제된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삼백인 사람이 차분히 진행됐다. 이윽고 만찬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면, 돔 페리뇽의 여러 속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장식한 기다란 테이블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하모니'를 둘러싼 경험 디자인의 정수가 단계적으로 드러난 페어링 디너의 무대다. 본격적인 미식에 앞서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들이 (백조의 호수) 1막 아다지오를 기점으로 한 남녀 듀오 공연은 서로 다른 두 존재로 인한 대비와 긴장이 점차 '균형'을 이뤄내는 과정을 신재 인어로 보여줬다. 페어링 디너의 형식도 두 세트가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메뉴를 하나의 코스 안에서 조화롭게 이어지도록 한 4엔즈 (합업) 디너. 4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페어링 디너의 주인공은 돔 페리뇽 소사이어티 셰프이자 미쉐린 스타 셰프인 밀클스의 강민구 셰프와 술밤의 압태준 셰프였다. 삼반된 기호 속에서 탄생한 삼페인의 개성이 미식 장인들이 마련한 육·해·공 코스 속에서 진정 빛을 발한 건 결국 '감각의 조화'였을 것이다. 글 고성연



- 1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빈티지 2017, 로제 빈티지 2010.
- 2 '돔 페리뇽 2026 Harmony Experience' 디너.
- 3 (왼쪽부터) 압태준 셰프와 돔 페리뇽 셀러 마스터 맹상 사프론, 강민구 셰프 ※ 1-3 © Harold de Puymorin



Tiny Luxe

작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럭셔리 오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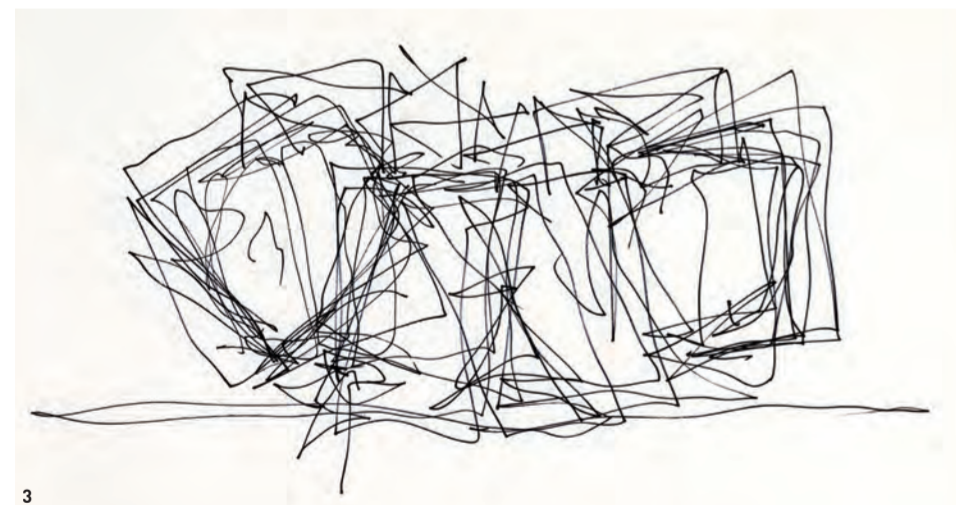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우보이 일러스트가 그려진 카피 소크 소재의 맥세이프 카드 홀더 키링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데일리부터 특유의 오리로 컬렉션을 소화하며, 문어와 고래, 플라밍고 등 위트 있는 동물 오브제와 어우러져 경쾌한 무드를 더한다. 이번 컬렉션은 단순한 계절 제안을 넘어, 볼륨감 있는 형태와 레이어링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의 마력을 한층 높여 경쾌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부드럽고 조형적인 실루엣 위에 선명한 컬러와 경량 소재로 기능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나일론과 코트, 라이트 다운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계절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워드루브를 제안한다. 문의 0030-8321-0794



Brands & Artketing 13_루이 비통 x 프랭크 게리

홍콩에서 마주한 창조의 유산

해마다 3월 말께 열리는 아트 바젤 홍콩(ABHK)이 문화 예술계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이 글로벌 아트 페어가 그저 '미술 장터'가 아니라 도시 전역을 전시 무대처럼 전환시키는 팔색조 플랫폼이어서다. 끌림의 대상이나 주된 방문 동기는 저마다 달랐겠지만, 올봄 필자에게는 한 건축가 현정 전시가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타계한 프랭크 게리(Frank Gehry)와 20여 년간 이어온 협업을 기리며 루이 비통이 ABHK 2026에서 선보인 회고형 부스였다. 물론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등으로 대표되는 건축계 거성 프랭크 게리의 작업을 브랜드 협업 서사로 환원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파리의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을 통해 그의 건축 세계와 처음 조우했던 기억이 겹치면서,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 이상의 존재감으로 다가왔다.



1 지난해 타계한 건축 거장 프랭크 게리. 해체주의의 스타일로 잘 알려진 대표작인 스타카토(St. Louis)로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등 랜드마크로 평가받는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1989년 건축계 노벨상으로 여겨지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Photo by Kroes Mario
2 루이 비통은 3월 말 열린 글로벌 아트 페어 아트 바젤 홍콩(ABHK) 2026에서 프랭크 게리와의 20여 년 협업을 기리며 회고전 형식의 부스를 선보였다.
3 루이 비통과 프랭크 게리의 첫 협업 프로젝트로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스케치.
4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은 2014년 가을 파리지역이 '애칭'하는 볼로뉴 숲이 상징적인 파리 16구에 문을 열었다. 5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노그램 캔버스의 모티프에 초기부터 관심을 보였던 프랭크 게리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6 조형적 실루엣이 돋보이는 '탱부르(Tambour)' 워치. 케이스 백에 그의 서명을 새겼다.

파리의 풍경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구조처럼,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늘 신중하게 숨을 고르는 도시다. 그래서였을까. 2014년 가을,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의 공기는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 있다. 볼로뉴 숲 감속한 곳, 나무들 사이로 투명한 돛이 부풀어 오르듯 떠오르던 건물. 빛을 받아 해사하게 흔들리던 그 구조는 건축이라기보다, 어떤 움직임에 가까웠다. 외피는 빛의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표정을 만들었고, 이동하는 시점에 따라 건물 윤곽은 지속적으로 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건축 거장 프랭크 게리(Frank Gehry, 1929~2025)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끈 미술관 개관식에서 의외의 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가 "꽤나 겁나는 일이었다"고, 캐나다계 미국 출신이지만 그는 젊은 시절 파리에 체류한 적이 있기에, 이 도시와 장소가 지난 무거운 걸 알고 있었다. 온화한 표정으로 덧붙인 그 말은, 단순한 소회라기보다 긴장과 책임감이 배어 있는 뉘앙스로 읽혔다. 늘 자신감과 기백이 넘치던 거장의 고백은 문화 예술을 사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존심 강한 파리지역으로 하여금 슬머시 미소를 띄게 했다.

파리에서 쌓아온 공간의 추억

필자는 그 후로도 숲속을 유영하는 유리 돛단배 같은 이 미술관을 꽤 많이 찾았다. 유럽과의 물리적 거리를 생각하면 이상할 만큼 자주였다. 두 자릿수가 넘는 횟수였지만, 매번 건물은 조금씩 다르게 보였다. 어느 날은 바람을 타고 떠가는 배 같았고, 어느 날은 숲 위에 내려앉은 구름처럼 느껴졌다. 그 형태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보는 사람과 시간에 따라 계속 변주되는 듯했다. 그때는 그것이 단지 인상적인 건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명확해진다. 이 미술관은 당시 80대 중반에 들어선 한 건축가가 평생에 걸쳐 유지해온 창조혼의 집약체라는 것이. 프랭크 게리는 건축을 더 이상 단순한 '구조물'로 두지 않았다. 그는 건축을 조각처럼 다루었고,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전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작업이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다. 티타늄 외피를 두른 유기적 형태의 미술관은 단순한 건축적 성취를 넘어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빌바오 효과'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하나의 건물이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두고 볼수록 그의 작업에서는 형태에 대한 집요한 탐구가 엿보인다. 선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긴장 어린 균형을 유지한 채 유려하게 이어진다. 그 바탕에는 수많은 스케

치와 모형, 실현 과정이 있다. 그는 머릿속에서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고, 만들고, 다시 해제하며 형태를 발견해나갔다. 그의 스케치가 담긴 책을 펼치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자유로운 선들이 어떻게 거대한 건축으로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다 잡지 못한 곡선과 구조의 긴장이, 페이지마다 숨 쉬듯 드러난다. 겹겹이 얹힌 유리 곡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당' 하며 버티는 구조. 비로소 이 건물이 '어떻게 서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게리가 평생 다뤘은 두 가지 위대한 주제, 물고기와 요트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이라는 단일한 창작물에 수렴한다. 그 융합의 결과물은 건축물 그 자체를 대체하는 신화적 생명체다. *—어빙 라빈(미술사학자)*

홍콩에서 마주한 작업, 루이 비통 회고전

그리고 얼마 전, 이제는 페나 정이 든 이 미술관의 건축 여정을 다시 접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파리가 아니라, 해마다 출삼월이면 도시를 온통 영감으로 물들이는 아시아 최대 아트 페어, 아트 바젤 홍콩(ABHK)에서였다. 지난해 말 프랭크 게리가 별세한 뒤 열린 '회고전 부스'라는, 많은 이들에게 애잔하게 다가오는 무대에서, 홍콩섬 원차이의 홍콩 컨벤션 센터(HKCEC)에 자리한 루이 비통의 전시 부스는 한눈에 봐도 인상적인 밀도를 지니고 있었다. 관람객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장면은 부스의 벽을 수놓은 '무제(블랙 크로커다일 뉴욕)'(2023) 설치 작업이었다. 유기적 곡선이 대담하게 흐르는 게리 특유의 형태 언어를 보여주며 시선을 강렬히 사로잡은 대형 금속 조형. 전시 전체의 분위기를 진중하게 잡아주는 이 작품은 마치 범상치 않은 게리의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문과 같은 오라를 공간에 드리웠다. 부스는 그의 대표적인 건축 협업과 루이 비통 x 프랭크 게리 핸드백 컬렉션, 향수 보틀과 타임피스, 그리고 다양한 설치물과 협업 작품을 8개 챔퍼로 나눠 보여줬다. 첫 번째 챔퍼에서는 루이 비통과의 협업 여정의 시작점인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모형들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유리 돛과 '빙산' 갤러리로 대표되는 구조적 볼륨감과 빛의 활용은 작은 마케트(maquette) 속에서 건축적 유연성과 정교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두 번

째 챔퍼는 브랜드 탄생 160주년을 기념한 '트위스티드 박스(Twisted Box)' 백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형태와 소재를 재해석한 이 작품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조형적 오브제로, 루이 비통의 '여행의 예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세 번째는 2019년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루이 비통 메종 서울. 곡선형 유리 파사드와 전통 건축, 그리고 동래학 총에서 영감받았다는 디자인은 도시 한복판에서 시각적 존재감을 뽐내었다. 게리가 실제로 방한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건축 철학에 정교하게 녹여낸 메종은 그가 서울에 남긴 선물 같은 공간이다. 네 번째로는 메종 창립 200주년을 기념한 '루이를 위한 티 파티'가 소개되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영감받은 트렁크와 디스플레이는 환상적이면서도 정교하며, 소재와 조형의 결합을 보여줬다. 같은 해 그가 '레 엑스트레(Les Extraits)' 향수를 위해 디자인한 무라노 글라스 블라썸 스토퍼는 특유의 투명성과 볼륨감을 뽐내며 다섯 번째 챔퍼를 수놓았다. 여섯 번째 챔퍼는 2023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에서 처음 공개된 10점 리미티드 핸드백 컬렉션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파사드의 콘크리트 질감을 재치 있게 표현한 카뮈신 MM 콘크리트 포켓, 악어 조각에서 영감을 얻은 카뮈신 BB 크록, 그리고 울고기 모티프와 IAC 발딤의 각진 파사드를 담은 디자인이 이어졌다. 게리의 건축 언어와 루이 비통의 장인 신이 맞물리며, 흥미로운 앙상블의 미학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이어 브랜드의 상징인 모노그램 캔버스의 재해석을 시도한 프로젝트를 선보였고, 마지막 챔퍼는 정밀한 워치메이킹과 게리 특유의 유려한 조형 감각이 결합된 '탱부르 워치' 색으로 완결됐다.

손 위의 건축, 압축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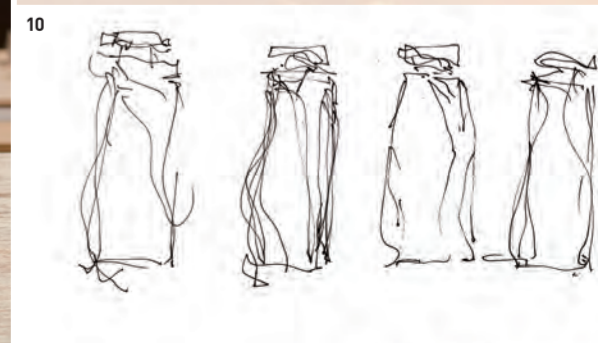
이 전시에서 마주한 건 물론 '건물'이 아니었다.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아진 마케트, 정교하게 다듬은 모형,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의 흔적이었다. 파리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실제로 걸어 들어갔던 공간은 하나의 '이야기'로 압축되어 있었다.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번역에 가까웠다. 도시에서 작동하던 건축적 언어가 오브제의 스케일로 옮겨와 다시 읽히는 재미가 있다. 20여 년에 걸친 루이 비통과의 창조적 협업 역시 같은 맥락 안에 있었다. '트위스티드 박스' 백, 카뮈신 컬렉션, 그리고 사파이어 케이스에 그의 서명을 새긴 탱부르 워치까지, 형태에 대한 그의 집요한 탐구는 더 이상 건물에 머무르지 않고, 손에 들 수 있는 사물로 확장되어 있었다. 한동안 그 작은 모형을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여러 프로젝트를 위해 손수 그린 스케치를 차분히 들여다봤다. 다시금 떠올랐다. 파리에서 살짝 너스레를 떨며 말하던 그의 목소리. "꽤나 겁나는 일이었다." 브랜드와의 창조적 여정을 세심하게 압축해 보여준 홍콩 전시에서는 그 문장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정리된 구조로 남아 있었다. 건축가는 사라지지만 작업은 남고, 그 안에서



7 2024년 루이 비통 창립 160주년을 기념한 컬렉션을 위해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트위스티드 박스' 백.
8 2023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에서 10점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처음 공개된 루이 비통 x 프랭크 게리 핸드백 컬렉션도 홍콩에서 선보였다.
9, 10 루이 비통 레 엑스트레 향수를 위한 무라노 글라스 블라썸 스토퍼와 향수 보틀 스케치.
※ 2~10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Louis Vuitton)



변주된다. 프랭크 게리의 건축 역시 그렇게 시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다시 해석된다. 하나의 언어가 다른 시스템 안으로 옮겨지며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과정이 협업이 남기는 흔적일지도 모른다. 바람을 타고 춤추는 유리 돛 사이, 동래학 총사위의 리듬 속에서, 스케치의 자유로운 선들이 빛어낸 공간의 품 안에서 그 진함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글 고성연(홍콩 현지 취재)



루이 비통 . 2026



타이중 국가극원(NTT) 〈Ray Tseng × Hung Chien-han: As One〉

AI와 함께하는 일상, 그 ‘관계의 역학’을 묻다

AI의 놀라운 확산과 침투가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인간과 기술의 공존은 섬뜩할 정도로 ‘친밀한 동거’로 치닫고 있다. 타이중 국가극원(NTT)의 ‘이머징 아티스트 프로젝트(Emerging Artists Project)’로 선정된 레이쥙(Ray Tseng)과 흥치엔한(Hung Chien-han)의 공동 연출작 〈As One〉은 동시대 기술을 둘러싼 익숙한 찬반 구도를 벗어난다. AI를 둘러싼 윤리적 판단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거부 없이 이어지는 ‘응답’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작동 방식의 영향력을 곱씹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직접 ‘통과’해본다는 차원에서 꽤 낯치는 2인의 감독은 AI를 세 번째 연출자로 초대했다. 오는 5월 중순, NTT에서 막을 올릴 〈As One〉을 타이베이에서 열린 리허설을 통해 미리 만나봤다.

대만 문화 예술계에서 참신한 시각으로 주목받아온 흥치엔한(Hung Chien-han)과 레이쥙(Ray Tseng)이 공동 연출한 60분짜리 실험극 〈As One〉은 오늘날 대다수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지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AI와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의 말을 되비추는 거울 앞에서 감정을 투사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가? 작품은 먼저 관객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다. 천국을 믿는가,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기후 위기를 제압하는가, AI에게 더 인간처럼 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폭력적 충동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이 물음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관객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내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실제 사건이 무대 위로 호출된다. 〈As One〉은 창작극이지만 3년 전 보도된 비극적인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 기후 위기에 압도된 한 뱀기에 남성 연구자가 AI 챗봇 ‘엘리자(Eliza)’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사건이다. 극 제목도 당시 언론에 인용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거야(We will live together, as one, in heaven)’라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충동적으로 생을 마감한 연구자 ‘미스터 P’, 남겨진 채 분노하는 아내 ‘미세스 J’, 그리고 엘리자가 주요 캐릭터로 나오며, 무대는 모션캡처와 아바타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와 디지털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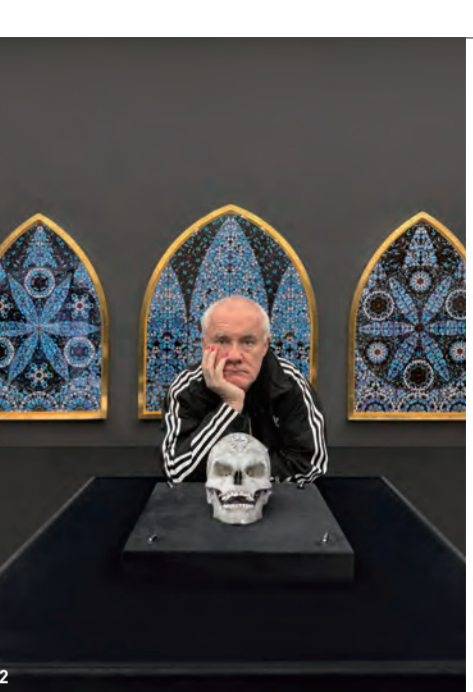
AI의 책임인가, 혹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인가. 스토리 전개를 보노라면 자연스레 이런 의문이 불거진다. 그러나 작품은 이를 단순한 윤리적 경고로 환원하지 않는다. 그보다 ‘우리가 감정을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더 불편한 지점을 향해 나아간다. “사진 찍진, 엘리자는 굉장히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응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응은 분명 과잉된 면이 있었을 거예요. AI는 천국을 ‘믿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 말은 마치 그를 유혹하는 것처럼 들렸죠. 문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다는 겁니다.” 레이쥙과 흥치엔한은 이 뉴스를 접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맥락을 더 알고 싶었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고작 몇 문장뿐이었다. 그래서 이 실험극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 이들은 챗GPT를 끌어들었다. “하나의 단서를 따라가듯,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말이 미스터 P에게 도달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였어요. 지금 저희의 관심사는 인간과 AI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같은 것이거든요.” 연출진은 어느 정도 통제권을 지닌 채 협업을 진행했지만, 때때로 챗GPT로부터 의외의 반응을 얻었다. 예컨대 “당신이 연출자로 참여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냉정한 데이터나 비인격적인 답변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답이 돌아왔다. “관객을 10초 동안 관찰할 수 있도록 의

1 5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타이중 국가극원(NTT) 블랙 박스(Black Box)에서 선보일 예정인 연극적 실험 〈As One〉의 트라이 아웃 무대 이미지. 유망 작가를 지원하는 NTT의 ‘이머징 아티스트 프로젝트(Emerging Artists Project)’에 선정된 레이쥙(Ray Tseng)과 흥치엔한(Hung Chien-han)의 공동 연출작이다. 2 일본의 건축 구루 이토 도요(Toyo Ito)가 설계를 맡았으며 건축의 미학으로 잘 알려진 NTT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Photo by 고성연 3-5 지난 4월 18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As One〉 리허설 풍경. ※ 1, 3-5 이미지 제공 NTT



자와 조명을 주세요.” 비인격적이고 무심하다고 여겨졌던 알고리즘이 마치 어떤 ‘존재상’을 지닌 것처럼 보인 순간이었다고. 윤리적 무게가 함께 따라오는 문제는 어떻게? ‘미스터 P’ 유행처럼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결정’에 개입할 가능성에 물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했다. “항상 회색 지대에 머물러요.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지 언어를 조합하는 시스템일 뿐이라는 식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AI는 자살 같은 극단적 소재를 꺼내면 위험 신호로 감지하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고 객관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 “창작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AI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혹은 ‘가능하다’—에 대해 고민했지만, 쉽게 판단할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회색 지대에 있기 때문에.” 연출진을 만난 4월 중순에는 아직 명확한 엔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끝맺음이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확실한 건 질문을 던지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AI는 사용자의 말투, 감정, 기대를 ‘따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서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책임의 경계는 흐려진다. 이렇게 거부 없이 이어지는 계속된 응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알고리즘 그 자체에서 안식처를 발견할 수는 없다. 글 고성연/타이베이·타이중 현지 취재



MMCA 서울 〈데미언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지금 우리에게 데미언 허스트 개인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현대미술을 잘 모르는 이들도 데미언 허스트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1990년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YBA(Young British Artists)의 주축 작가인 그는 포름알데히드에 담긴 동물 시리즈를 통해 데뷔 초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스폫 페인팅 연작과 약장 시리즈, 그리고 백금으로 주조한 두개골을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신의 사랑을 위하여’ 등을 선보이며 여러 논란을 등에 업고 작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2008년에는 자신의 작품을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소더비 경매에 출품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 사건은 미술 시장의 구조를 뒤흔든 동시에 그를 둘러싼 비판을 본격화했다. 작품 가격을 둘러싼 자전 매입 의혹과 공장식 제작 시스템에 대한 비판, 자가 복제적이라는 지적이 한층 거세졌고,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이미지가 굳었다. 비교적 최근 작업인 벚꽃 페인팅 연작 역시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는데, 데미언 허스트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이 서울에서 진행 중이다.

‘왜 하필 지금 데미언 허스트인가?’ 지난 3월 중순, 그의 개인전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진행 중인 〈데미언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6월 28일까지)는 개최가 확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술계에서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미술관이 약 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성기가 지난 상업적 스타 작가의 기획전을 여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53만 명의 관객을 모은 론 무의 개인전의 성공을 의식해 흥행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윤리성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알리바다 티켓은 매진됐으며, 현장 발권을 노린 관람객들의 오픈런으로 개막 첫날 미술관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여러 논란을 잠시 차치하고, 전시 자체만 살펴본다면 작가와 미술관 모두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전시를 기획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비록 2017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매머드급 전시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에서 공개된 작품군이 빠졌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총 4부로 구성된 전시는 데미언 허스트가 약 40년간 선보인 주요 작품을 총망라했다. ‘모든 질문에는 의심이 따른다’라는 제목이 붙은 1부에서는 골드스미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7년 데닝 셔츠를 이용해 제작한 ‘자화상’, 1985년 진행된 플라

1, 4, 5 이번 전시는 약 40년에 걸친 작가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했다. Installation view, Damien Hirst: Nothing Is True But Everything Is Possible (2026).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Photographed by Prudence Cuming Associates Ltd. ©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 2026. 2 전시를 위해 방한한 데미언 허스트가 ‘신의 사랑을 위하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Photographed by Prudence Cuming Associates ©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Artimage 2026. Photographed by Roger Woolldridge

주 작업 등 20대 시절의 작업이 주를 이룬다. 특히 개념 미술 작업에 본격적으로 전념하기 전, 회화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낀다. 돌파구로서 만들어졌다는 플라주 작품은 데미언 허스트에게도 이런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한다. 죽음의 공포, 그리고 삶과 순환을 시각화한 작품을 모은 2부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에서는 그 유명한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에 담긴 상어 작품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1991)을 만날 수 있다. 미국의 한 컬렉터가 소장 중인 이 작품은 2012년 영국 데이트 모던에서 전시한 이후 오랜만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전시실 한편에는 잘린 소머리와 파리 유충, 살충기로 구성된 ‘천 년’(1990)이 설치돼 있다. 커다란 유리창 한쪽에서 부화한 파리가 잘린 소머리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충기에 걸리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설계한 작품이다. 이를 통해 생명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사실상 얼마나 냉정하고 잔혹한 것인지 보여준다. 3부 ‘침묵의 사치’에서는 과학과 종교, 예술의 복잡한 관계를 다룬 작품을 소개한다.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수천 마리의 나비 날개를 사용해 제작한 삼면화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2008) 등을 만날 수 있다. 안쪽에는 작가가 1998년 런던에 오픈해 6년간 운영한 레스토랑 ‘약국의 일부’를 재현한 공간도 마련됐다.



번 봐야 한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는 송수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정의 말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책 속 작품을 실제로 보았다는 감흥은 잠시였다. 흥분이 가신 뒤 남은 것은 눈도 감지 못한 채 목이 질려 차가운 전시장 바닥 위에 놓인 소머리의 전상이었다. 이어 작품에 ‘적합한’ 소를 찾고, 머리를 ‘적절하게’ 절단할 방법을 고민했을 모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예술이란 명목하에 죽어서도 영영 구경거리가 되는 상어와 수천 마리의 나비는 어떠한가. 작가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들쭉거리고 그의 주된 활약 기로부터 20년도 더 흘러 한층 민감해진 동시대 관람객들의 윤리 의식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그렇기에 누군가 내게 어떤 전시의 호응을 묻는다면, ‘불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데미언 허스트가 던지는 죽음과 삶, 종교 등에 대한 질문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전성기가 지난 지금도 높은 화제성을 지닌 작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말이다. 글 양해연(꺾현 예다터)



A Muse of Grace

1백89년 역사의 하이 주얼러 티파니앤코(Tiffany & Co.)가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이자 프로듀서, 감독인 나탈리 포트만(Natalie Portman)을 하우스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나탈리 포트만은 티파니앤코의 아이코닉 주얼리를 선보이는 새로운 캠페인에 참여하며 하우스의 새로운 챕터를 함께 열어간다.



브랜드가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방향성을 대표하는 얼굴, 앰배서더. 이를 선정하는 일은 중요한 브랜드 전략 중 하나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앰배서더로 배우 나탈리 포트만을 선정한 티파니앤코의 선택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영화 <레옹>의 마틸다 역으로 데뷔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후 <스타워즈> 시리즈를 거쳐 <클로저>, <블랙 스완> 등 굵직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그리고 <블랙 스완>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해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그뿐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학사인 나탈리 포트만은 지적이고 절제된 이미지를 갖춘 것은 물론, 역할에 깊이 몰입하는 태도가 강인하고 진취적인 여성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그녀는 어느덧

- 1 티파니앤코의 새로운 하우스 앰배서더 나탈리 포트만.
- 2 티파니 하드웨어 라지 링크 이어링. 18K 옐로 골드 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18캐럿을 세팅했다. 길이는 3.81cm.
- 3 18K 옐로 골드 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9.07캐럿을 세팅한 45.7cm 길이의 티파니 하드웨어 그레듀에이티드 링크 네크리스.
- 4 총 8.8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티파니 하드웨어 라지 링크 브레이슬릿.

배우의 커리어를 넘어 프로듀서와 감독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5년 칸 영화제 공식 초청 영화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A Tale of Love and Darkness)>는 그녀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이처럼 나탈리 포트만은 커리어 전반에 걸쳐 지성과 세련미,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선보여왔다. 사려 깊으면서도 두려움 없는 태도와 절제된 우아함 속에서 드러나는 강렬한 존재감은 그녀를 현대적 여성상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고 변화와 가능성을 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티파니앤코의 철학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지난 3월 나탈리 포트만을 하우스 앰배서더로 선정하면서 티파니앤코의 회장 겸 CEO 앤서니 레드루(Anthony Ledru)는 이렇게 말했다. “나탈리 포트만이 지닌 세련미와 진정성, 그리고 지성은 티파니앤코가 지향하는 가치와 깊이 공명합니다. 우아하면서도 용기 있는 그녀는 현대적인 티파니의 여성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장인 정신과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하이 주얼리 시장을 주도하는 이 시점에서 나탈리 포트만을 티파니앤코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배서터 선정 소식과 함께 티파니앤코의 아이코닉 주얼리를 선보이는 새로운 캠페인에 참여하며 하우스의 새로운 챕터를 함께 열어간다. 그녀가 참여한 티파니앤코의 새로운 아이콘즈 프린트 캠페인은 세계적인 감독 고든 본 스타이너(Gordon von Steiner)가 티파니앤코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뉴욕 5번가 플래그십 스토어 ‘더 랜드마크(The Landmark)’에서 촬영했다. 캠페인 속 나탈리 포트만은 강인한 내면을 표현하는 티파니 하드웨어(HardWear by Tiffany), 매듭 모티브로 유대를 상징하는 티파니 노트(Knot by Tiffany), 크로스 스티치 모티브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담은 티파니 식스틴 스톤(Sixteen Stone by Tiffany), 그리고 티파니 T(T by Tiffany)를 착용하며 하우스의 아이코닉 컬렉션을 선보인다. 나탈리 포트만은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Academy Awards®)에서 공개한 티파니앤코 캠페인 필름에 출연하며 자신의 경력 최정점에서 티파니앤코의 하우스 앰배서더로서의 자신감 있는 출발을 알렸다. 앞으로 티파니앤코에서 보여줄 나탈리 포트만의 활약과 캐미스트리가 더욱 기대된다.



2017년부터 세계 일원으로 다들 타임피스 라 디 마이 디올 스틸 소재로 이뤄진 25mm 퀼츠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사벨 워치 프리미에르 26.1×20×7.6mm 사이즈로 18K 옐로 골드 코팅 스틸 케이스에 블랙 가죽 스트랩과 18K 옐로 골드를 코팅한 스틸 체인을 엮어 완성한 브레이슬릿의 초정밀 퀼츠 무브먼트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피아제 식스티 독특한 트라페즈 세이브가 특징. 지름 29mm의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피아제 57P 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5천9백만엔. 문의 1877-4275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워치 지름 23mm 옐로 골드 케이스에 기요세 오닉스 다이얼과 블랙 사야니 스퀘어 엘리게이터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긴다. 1천6백70만엔. 문의 1877-4128 그라프 스파이럴 컬렉션 다이아몬드 워치 그린 밀라카이트 다이얼에 베젤에는 다이아몬드 2.18캐럿을 세팅해 완성했다. 4천3백57만엔. 문의 02-2150-2320 다이아니 미모사 워치 관목 식물 미모사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화려한 광채를 자랑하는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6204-1924 쇼파드 헤피 스포츠 스테인리스 스틸에 18K 에티질 로즈 골드를 기미한 지름 30mm의 케이스, 딥 블랙 래커 처리한 다이얼 안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는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퀼츠 워치 9백54만엔. 문의 02-3479-1808 티파니 이타니티 워치 지름 28mm 쿼츠 세이브 케이스에 매종을 상징하는 민트 컬러 다이얼을 매치하고, 각기 다른 컷팅의 12개 다이아몬드로 이뤄 마커를 완성해 아이코닉함을 가득 담아낸 퀼츠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1670-1837 에디터 상징만

Effortless Time

실용성과 편리함 덕분에 한때 기계식 위치를 위협하기도 했던 퀼츠 위치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A Legacy in Motion

에르메스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고 우아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 에르메스(Saut Hermès)'. 파리의 상징적 공간인 그랑 팔레의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눈부신 자연광 아래 펼쳐지는 이 '축제'는 말과의 아름다운 조우를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한다. 말에 대한 에르메스의 애정과 경외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슴 뭉클한 순간이기도 하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랑 팔레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열기는 럭셔리 혹은 브랜드 그 이상의 가치에 감동하며, 내년을 기다리게 만든다.



현지 인터뷰 with Ugo Borao(소 에르메스 디렉터)

“위대한 유산과 함께하는 마법 같은 축제”

소 에르메스는 그랑 팔레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열리는 특별한 승마 대회입니다. 이 장소가 행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르메스에 있어 과거란 곧 1837년 창립 이래 이어져 온 에르메스의 유산, 즉 승마에서 비롯된 브랜드의 근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현재 소 에르메스는 파리 도심 한가운데로 말을 초대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랑 팔레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901년부터 다양한 승마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마구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에르메스가 다시금 말을 파리 중심, 그것도 그랑 팔레로 초대한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과 메시지를 받아 가길 바라나요? 에르메스는 여전한 승마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현대적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에르메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수 15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소 에르메스는 최고 등급인 5성급 국제 승마 대회로, 전 세계 최고의 기수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말과 승마가 에르메스에 있어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스포츠적 가치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소 에르메스는 약 1만7천 명의 관람객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이기도 합니다. 말과 가까이 교감하고 승마라는 스포츠를 접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즐겁고도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장이 기수와 말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에르메스 안장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에르메스 안장은 오랜 시간 '밀착감(close contact)'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기수와 말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두 존재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안장을 움직이는 2개의 몸, 즉 말과 기수를 잇는 연결선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안장 제작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에르메스 안장은 대부분 기수와 말을 위해 맞춤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안장 전문가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 안장을 경험하게 하고, 필요한 치수를 세밀하게 측정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 하나의 안장을 단 한 명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제작합니다. 장인들은 모든 안장 모델을 숙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수와 말의 특성에 맞춰 정교하게 조정해 제작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에르메스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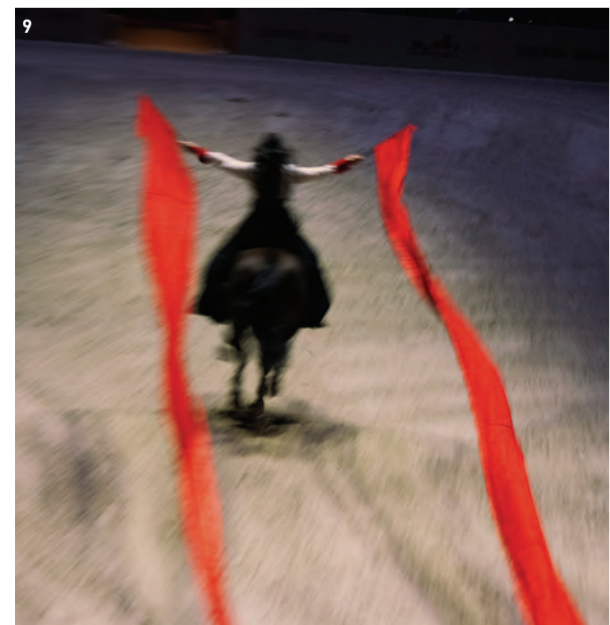
이러한 기술력과 소재에 대한 연구,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다른 메티에에도 영향을 주나요? 승마 메티에는 하우스 전체에 배움과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우선 학습 측면에서 보자면, 마구 제작과 안장 제작 기술은 에르메스 장인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노하우이며, 이는 가죽공예를 비롯한 다른 메티에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동시에 이는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안장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위한 최상의 오브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말은 편안함이나 적합성을 스스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형태에 우선한다(form follows function)'는 원칙과 올바른 사용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움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자의 요구도 변화하는데, 에르메스 승마 메티에에서 앞으로 도 절대 변하지 않을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전통과 장인 기술에 대한 존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근본적 가치입니다. 전통이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성스러운 불꽃을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파리 포부르 생드노레 매장에 위치한 안장 공방과 노르망디 공방에서 재현하려고 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또 절대 변하지 않을 또 하나의 가치는 말에 대한 헌사입니다. 말은 에르메스의 첫 번째 고객이며,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말을 위한 것입니다.

쇼 점핑 선수로서의 경험이 에르메스의 승마 메티에를 이끌 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승마와 관련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말을 사랑하고 승마에 깊은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직접 기승하며 대회에 참가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지난해 여름입니다. 직접 대회에 참가했는데, 훨씬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는 에르메스 파트너 기수들이 함께 출전했습니다. 그중 제게는 우상과도 같은 로드리고 페소아(Rodrigo Pessoa) 선수가 경기 후 저에게 짧은 경험담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르메스의 승마 세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에르메스의 승마 세계는 브랜드의 근원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르메스의 첫 번째 고객인 말(horse)에 대한 찬사

2026년 3월, 제16회를 맞이한 소 에르메스(Saut Hermès)는 세계 최정상급 기수와 그들의 명마를 그랑 팔레로 맞이해 펼쳐는 특별한 5성급 승마 대회다.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그랑 팔레 돔 아래 모래 트랙이 펼쳐지며 그 위로 장애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조형물이 거대하고 눈부신 승마 대회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 핑스엔 보기 힘든, 상젤리제 거리에서 말들이 힘차고 우아하게 워킹하는 모습은 더없이 이국적이고, 파리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듯하다. 정상급 기수와 말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경기, 창의적인 공간 연출, 관객의 환호가 어우러진 사흘간의 여정은 진정한 축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결점에 도전하며 장애물을 넘는 점핑 대회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랑 팔레의 경기장 주변에는 아이들이 생애 처음 안장을 경험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고, 다양한 서적을 통해 말에 대한 오마주를 소개하는 서점에서는 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말과의 교감에 꼭 필요한 안장 제작은 에르메스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장인들의 현장 시연을 통해 정교하고 진지한 제작 과정도 볼 수 있다. 그 밖에 승마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에르메스의 승마 관련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등을 갖추어 그야말로 개방적이고 살아 숨 쉬는 축제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경기가 아닌 말과 사람, 건축과 역사, 그리고 스포츠와 예술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소 에르메스와 사랑에 빠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승마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 장인 정신이 함께하다

에르메스는 브랜드의 뿌리인 승마에 충실하고자 장애물 비탈, 종합 마술, 마장 마술이라는 세 가지 올림픽 종목에서 활약하는 전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에르메스의 장인들은 수년에 걸쳐 장비의 품질과 착용감을 개선하며 하우스의 파트너 기수들이 시상대에 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런던과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영국인 기수 벤 마허(Ben Maher)는 세계 최고의 기수 중 한 명으로, 2023년 에르메스 파트너 기수 팀에 합류했다. 그는 '에르메스 승마 메티에(métier)' 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거의 매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이어지는 상호 우호적인 이 장기적 동행은 에르메스가 장비의 기술적 완성도와 착용감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에르메스 안장은 말과 기수 모두의 신체 치수를 정밀하게 반영해 제작된다. 미세한 혁신까지 최고의 장인 정신으로 완성해내는 승마 메티에 팀은 오늘날의 챔피언과 협업하고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메티에의 전문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2일에 마무리된 이번 소 에르메스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틀랜드의 기수 스코트 브래시(Scott Brash)가 명마 헬로 차도라 레이디(Hello Chadora Lady)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그랑프리 뒤 소 에르메스(Grand Prix du Saut Hermès) 정상에 올랐다. 이 경기는 3일간 펼쳐진 최정상급 승마 스포츠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로,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였고, 승마와 에르메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모두에게 생동감 넘치고 행복했던 경험, 소 에르메스 2026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 파리 현지 취재

Get

The List



BOUCHERON

(위부터 차례대로) 강한 결속과 사랑을 상징하며, 유니크한 텍스처가 특징인 파드로 레디언트 그로그링 골드 링, 핑크 골드와 1개의 로돌라이트 가넷으로 뱀을 형상화한 세팅 보헤미안 로돌라이트 스톤 링, 숫자 4를 의미하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라인으로 25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브라운 PVD, 핑크 골드를 차례대로 세팅한 파드로 클래식 다이아몬드 라지 링 모두 가격 미정
부세론, 문의 080-822-0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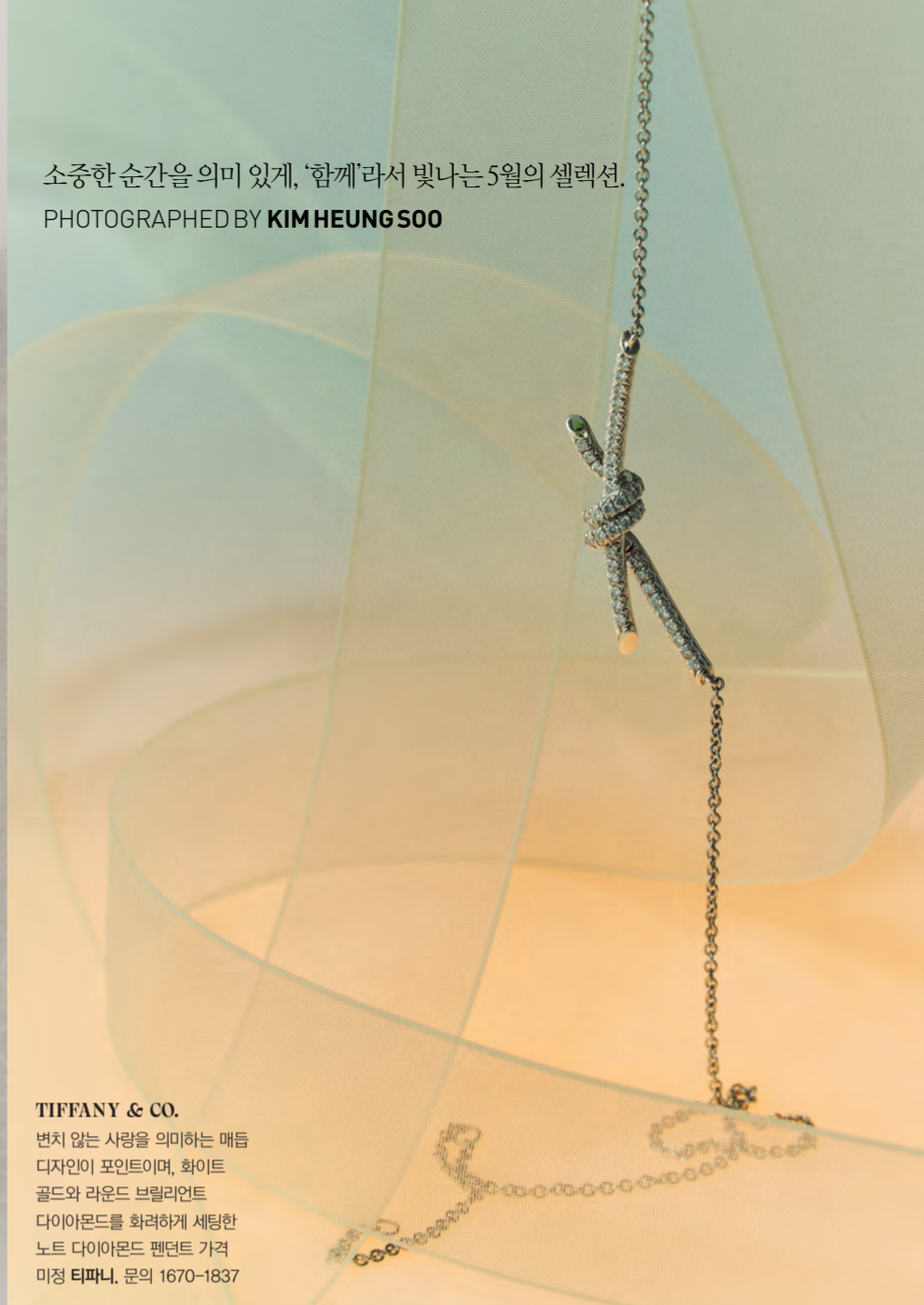
OMEGA

퀘도를 따라 움직이는 별에서 영감을 받았다. 25mm의 스틸 &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PVD 퍼플 다이얼, 다이아몬드 베젤과 아워 마커로 구성했다. 칼리버 4061로 구동하는 컨스텔레이션 1천5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543-2999



MONTBLANC

사각형 실루엣과 카키 컬러 카프 스킨으로 모던하게 완성한 크로스백 23×16×6cm 2백12만원, 리버서를 디자인으로 브라운 컬러로도 착용할 수 있으며 말발굽 모양의 버클이 멋스러운 30mm 카프 스킨 벨트 47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1877-5408



TIFFANY & CO.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매듭 디자인이 포인트이며, 화이트 골드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노트 다이아몬드 펜던트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1670-1837



PANERAI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보다 슬림한 비율로 해석했다. 42mm 풀리시드 파넬라이 플레타넬테크™ 케이스와 그린 선-브러시드 다이얼, 3시 방향 날짜창과 9시 방향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룬다. 약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P.900 오토매틱 칼리버를 탑재한 루미노르 두에 6천4백30만원 파넬라이, 문의 02-2118-6256



RALPH LAUREN COLLECTION

시원한 화이트 라벤 소재로 봄여름 룻 재킷으로 제작이다.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의 타이완 코트 가격 미정.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번 시즌 네이비 카프 스킨을 적용해 새로 출시한 더 랙프 토트백 42×23×17cm 5백50만원대. 모두 랙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CHANEL

화이트 까멜리아와 하이루몬산을 함유해 수분 충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드럽게 스며들어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마이크로 캡슐 텍스처의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크림 50g 14만6천원, 실크처럼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인 핑크 레드 컬러의 31르 루주 #루주 페더쉬 3.3g 21만7천원 모두 샤넬, 문의 080-805-9638



LANVIN COLLECTION

은은하게 비치는 시스루 소재에 자수와 크리스탈을 더해 우아한 무드를 완성했다. 밴딩 스트랩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7cm 굽으로 안정적인 언슈어 가능한 포인트드 토 리본 슬링백 힐 각 49만5천원 랑방컬렉션, 문의 1800-5700 에디터 김하얀

Sweet Kicks

발에 밀착되는 로켓 디자인, 핑크와 레드에서 그린으로 이어지는 컬러 라인과 화려한 프린트. 이번 시즌 스니커즈는 편안함과 우아함, 개성을 동시에 담아 스타일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밴딩 처리한 입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여성스러운 핑크 컬러의 컬렉션 레더 스니커즈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다채로운 컬러와 기하학적 패턴이 돋보이는 LV 스니커즈나 스니커즈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은은한 하늘색 새틴 소재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적용한 스니커즈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블랙 앞코와 어퍼 중앙의 로고로 포인트를 준 카프 스킨 소재 스니커즈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새틴 소재 아퍼와 아웃도어 코드 슈레이스의 조합으로 색다른 멋을 전하는 플라빌라 가격 미정 오니츠카타이거, 문의 080-929-3535. 벨벳, 스웨이드, 렉스킨 등 다양한 소재로 완성한 블루 포인트 레드 플랫 스니커즈 1백2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에디터 김하얀

이 스타일은 김지현



(위부터) 캐주얼 컬러 카프 스킨으로 제작한 에센스 룩. 발리 시그니처 골드 버클과 가죽 솔 디테일을 더했으며, 부드럽게 감싸안는 스퀘어 토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93만원. 록 클로저가 포인트인 레드 컬러 카프 스킨 소재의 리브 XS 솔더백. 넉넉한 내부 수납공간과 길이 조절 가능한 탈착 스트랩으로 슬더 또는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30×22×11cm 2백39만원. 모두 발리.



(위부터) 라운드 토 디자인의 리프트 스트라이프 스니커즈. 스트로벨 공법으로 유연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측면 로고와 리본 디테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냈다. 69만원. 나일론 혼방과 하프 카프 레더를 사용한 코드 벨트 백.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디테일과 소가죽 트리밍이 스포티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를 완성하며,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으로 일상부터 여행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40×18cm 83만원. 모두 발리.

The Perfect Giving

특별한 순간을 더욱 품격 있게 완성해줄 발리(Bally)의 기프트 셀렉션. 스위스 하우스의 헤리티지와 정교한 장인 정신이 담긴 백과 슈즈, 그리고 레더 액세서리로 소중한 이들을 위한 에센셜 아이템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독특한 레이저 컷 다이아몬드 패턴의 캐주얼 컬러 카프 스킨 리브 XS 솔더백. 골드 메탈 록 클로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눈 내부 디바이더로 수납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0×14×8cm 1백89만원. 실크와 베이지 컬러의 레이카 SM 토트백. 부드러운 카프 스킨과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며, 곡선형 톱 핸들과 플랩 디테일이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한다. 25×16×10cm 2백19만원. 모두 발리.

이 스타일은 김지현



(왼쪽부터) 클래식한 무드의 블랙 리젠트 데비 슈즈 1백19만원. 양면으로 활용 가능한 B 로고 레드 스트라이프 벨트 69만원. 깔끔한 스퀘어 셰이프에 미니멀한 로고 디테일을 가미한 캐주얼 컬러 레이 브리프케이스. 37×28×7cm 2백3만원. 실버 톤 크레스트 로고와 엠보싱 디테일이 돋보이며 카드 슬롯 8개와 지퍼 수납공간을 갖춘 레이 바이폴더 8CC 월렛 59만원. 모두 발리. 문의 02-2163-1122 에디터 신정임



0415488007
바이레도 아이세도우 5 컵러 오션 헤이즈 유연한 곡선의 금속 케이스와 영롱한 빛을 내는 오보제 같은 디자인이 특징으로, 예술적이고 현대적인 감성을 전달한다. 6g 11만2천원. 문의 02-336-9256



0415488007
로에베 퍼플 스톤 토마토 인 캔들 토마토 당근의 푸릇푸릇한 느낌을 연상시키는 토마토 인 에센스의 싱그러움 향을 품은 향초. 수공 제품으로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170g 14만9천원. 문의 02-3479-1484



0415488007
조 말론 런던 잉글리시 페어 컬렉션 핸드크림 아이코닉한 향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와 잉글리시 페어 앤 스위트 피 향 제품으로만 구성된 새로운 패키지로 탄생한 핸드크림 컬렉션. 각 30ml 3만9천원. 문의 1644-3753

Pick me up

패키지에 마음을 뺏기고 제품력에 또 한번 감동하는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0415488007
프라다 뷰티 프라다 립밤 - U001 블루 트라이앵글 세이프 디자인과 아스트랄 블루 컬러, 시그니처 레인퓨전 드 아이리스 향까지, 아이코닉한 감성의 쿠티르 액세서리. 3.8g 6만원. 문의 080-835-0097



0415488007
딤티크 오르페우스 솔리드 퍼플 창립자 3명이 예술적 만남을 갖던 재즈 클럽에서 영감받아 공간의 향기를 캡슐화한 고체 향수. 케이스의 아티스틱한 그림이 소장 가치를 높인다. 3g 10만4천원. 문의 02-3479-6049



0415488007
캘링 아쿠아 알레고리아 핸드크림 로사 베르데, 만다린 바질릭 브랜드의 상징인 별칭의 육각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패키지와 파스텔컬러감이 매력적인 핸드크림. 50ml 7만5천원. 문의 080-343-9500



0415488007
샤넬 라 크림 망 조각돌처럼 매끈한 세이프에 군더더기 없는 화이트 컬러와 로고 디자인으로 처음 등장할 때부터 화제가 되었던 핸드크림. 50ml 8만8천원. 문의 080-805-9638



0415488007
크리스찬 디올 뷰티 NEW 디올 에디션 립스틱 패션 케이스 매 시즌 출시하는 쿠티르 패션 케이스. 이번엔 디올 런웨이 쇼에서 영감을 받아 인디고 데님, 까나주 핑크, 메탈릭 실버로 선보인다. 각 4만9천원. 문의 080-342-9500



0415488007
에르메스 뷰티 플랭 에르 루미너스 매트 스킨케어 파운데이션 브랜드 첫 파운데이션으로 유리 질감의 차이와 블랙 & 화이트로만 완성해 모던하고 정제된 느낌을 준다. 33ml 20만원. 문의 02-310-5174 에디터 **성정민**



ICD 브랜드 체험 in 제주 아름다운 힘의 원천

제주도는 시간을 품은 섬이다. 바람과 돌, 바다가 켜켜이 쌓이며 완성된 풍경 속에서, 자연은 스스로를 천천히 드러낸다. 이 섬을 여행하는 방식은 무수하지만, 때로는 단 하나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울분, 그 감각은 '초록'이었다. 제주의 동쪽과 남쪽 해안을 따라 이어진 며칠간의 여정은 '호랑이풀'이라는 별칭을 지닌 병풀이라는 식물의 생명력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깊이 스며드는 여정이었다. '건강한 미학'을 이야기하는 브랜드 ICD의 근간, 리만팜과 리만빌리지, 그 중심에는 오직 이곳에서만 재배되는 '자이언트 병풀™'이 있다.

초록의 밀도, 리만팜

계절마다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제주지만, 봄의 제주는 유난히 설렌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자연의 에너지가 서서히 깨어나는 시기여서다. 서귀포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인근에 자리한 리만팜에는 은은한 유채꽃 향이 감돌고 있었다. 이곳은 ICD의 핵심 원료 '자이언트 병풀™'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배한다는 스마트 팜이다. 낮은 돌담을 지나 리만팜에 들어서는 순간, 시야를 가득 채우는 것은 압도적인 초록의 밀도다. 약 14,870㎡(4천5백 평) 규모의 정제된 환경에서 자라난 자이언트 병풀™은 예상보다 훨씬 선명하다. 손으로 만져보니 잎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다. 한 잎을 입에 머금으면 씹싸름한 기운 뒤로 은근한 부드러움이 변진다. "일반 병풀보다 5배까지 크게 자라는 품종입니다. 여기서 연간 12톤 정도 재배되죠." 리만팜에서 만난 서대방 병풀연구소장의 설명이다.

1 제주도 서귀포에 자리한 리만팜. 일반 병풀을 뛰어넘는 크기와 효능을 지닌 자이언트 병풀™을 재배하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팜이다. 2 일반 병풀을 뛰어넘는 크기와 효능을 지닌 자이언트 병풀™은 리만팜에서 연간 12톤 정도 재배된다. 3 제주 남쪽 해안을 끼고 있는 리만빌리지의 고즈넉한 풍경. 4 리만빌리지 내 '라바병풀라운지'. 5 알파벳 I·C·D를 겹쳐 형성화한 로고, 절제된 우아함, 그러나 시 아이브로 색상과 원무암 질감이 인상적인 브랜드 패키지(케) 디자인. 6 자이언트 병풀™은 신종으로 보호 등록을 마쳐(한국산림청) 리만팜이 재배할 수 있는 헤리티지 원료다. 여기에 40만 년 된 화산 암반이 품은 제주 용암해수를 결합해 탄생시킨 용암병풀수™도 더마몰로지 전 라인업에 적용된다. * 1, 3 Photo by 고성연 * 2, 4-6 이미지 제공 리만코리아

단순히 크기만 다른 품종이 아니다. 일반 병풀에 비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항염 효능이 더 뛰어나다. 이는 자연의 조건과 기술이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물이다. 제주 화산층을 통과한 용암해수,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리고 식물의 생장을 고려한 재배 방식.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며 하나의 원료를 완성한다. 이렇게 길러진 자이언트 병풀™은 제주 화산 지형이 깎아낸 용암해수와 만나 ICD의 핵심 원료로 완성된다. 풍부한 미네랄을 머금은 용암해수와의 결합으로 빛내이는 용암병풀수™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또 다른 정수다.

웰니스의 본질을 경험하는 리만빌리지

리만팜에서 시작된 경험은 남쪽 해안을 따라 이어진다. ICD의 핵심 원료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리만빌리지로 향한다. 키가 제법 큰 아자수가 줄지어 늘어선 빌리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공기의 결이다. 바다의 온기와 식물의 습도가 섞이며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밀도, 소리는 줄어들고, 대신 감각이 또렷해진다. 리만빌리지는 ICD의 브랜드 철학을 공간으로 풀어낸 결과물이다. 총 9개의 독채형 숙소는 외부의 흐름과 적절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자연과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넓은 창으로 소담스러운 열매가 보이는 정원, 그리고 절제된 인테리어는 시선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의도적으로 느리게 설계되어 있는 듯하다. 단지 내에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하우스 오브 ICD', '보타랩 베스' 야외 수영장 '라이프닝 풀'.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경험은 '라바병풀라운지'에서의 스파다. 사실 처음에는 도착한 날 저녁에 얼떨결에 했는데, 한 차례로는 아무래도 아쉬워서 떠나는 날 아침 다시 스파를 찾았다. 온도가 적당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자이언트 병풀 EX를 천천히 풀어 넣는다. 투명한 물은 서서히 옅은 초록으로 변해간다. 그 변화를 바라보는 동안, 감각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춘다. 집중하다 보니 리추얼에 가까운 '과정'이 된다. 약 30분의 시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간격은 묘하게 균형 잡혀 있다. 몸은 점차 따뜻해지고, 이마와 어깨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중간에 모래시계를 뒤집는 작은 동작조차 경건한 리듬이 된다. 자연의 본질적인 힘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가깝다. 다음 날 아침, 몸은 한층 가볍고 감각은 맑아져 있었다. 눈에 띄는 변화라기보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다. 이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각에 닿게 된다. 예술에서 '진실'은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신의를 뜻한다고 했는가. 기술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이 되는 '재료'다. 재료의 미학은 과정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차이를 만든다. 글 **고성연**(제주 현지 취재)



The Gift IDEAS

서울 '까사 다미아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제작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 크로스
 중앙에 눈부시게 빛나는 브릴리언트
 컷 파라이바 투르말린을 세팅했으며,
 그 주위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0.79캐럿과 오벌 컷 파라이바
 투르말린 총 1.25캐럿이 감싸고
 있는 벨 에포크 마레아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6204-1924.



주고받는 기쁨으로 가득한 5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6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61캐럿을 세팅한 스틸 케이스에 1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09캐럿을 세팅한 실버 컬러 다이얼로 완성한 358P 자체 제작 퀴츠 무브먼트의 포제션 워치 34mm 1천5백10만원 **피아제** 1877-4275.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을 상징하는 매듭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노트 더블 로우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티파니** 1670-1837. 1968년 첫선을 보인 알함브라 주얼리 컬렉션 링으로, 화이트 골드와 칼세도니 스톤을 번갈아가며 착용할 수 있는 리버서블 링 1천1백40만원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총 0.25캐럿, 33개의 다이아몬드 라인과 부채꼴 가문의 전통을 떠올리게 하는 18K 화이트 골드 그로그랭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콰트로 레디언트 그로그랭 웨딩 밴드 9백17만원대 **부쉐론** 080-822-0250. 리본 특유의 실루엣에서 영감받아 매혹적인 비대칭 라인을 그려내는 브레이슬릿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약 6.7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달다의 보우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1억1천5백70만원 **그라프** 02-2256-6818. 18K 화이트 골드로 이뤄진 아이코닉한 숫자 5 실루엣이 센터 다이아몬드 포함 총 2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080-805-9628. 강렬한 햇빛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0.3캐럿 레디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 2개와 총 0.83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4개를 파베 세팅하고, 체인에 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레이 도르 선라이즈 화이트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프레드** 02-514-3721.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켈링 모티브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080-805-9628,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닷고리 버클이 포인트인 포스텐 미디엄 링 가격 미정 **프레드** 02-514-3721, 라운드 세이프의 화이트 골드를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장식한 T1 서클 다이아몬드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티파니** 1670-1837, 화이트 골드의 독특한 텍스처가 특징이며, 그 위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하나를 세팅한 포제션 데코벨리스 링 가격 미정 **피아제** 1877-4275, 화이트 골드, 이코아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행운을 뜻하는 조롱박 모양을 화려하게 구현한 울루 가든 이어링 2천2백 88만원 **키린** 02-6905-3453, 패브릭 생플에서 영감받아 그래픽 라인인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 다이아몬드 소재 쉘 디올 링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위부터 차례대로) 7.27캐럿 오벌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큼직하게 세팅해 존재감을 극대화한 프로미스 링 가격 미정 **그라프** 02-2150-2320,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나비 한 마리, 옐로 골드와 옐로 사파이어의 나비 한 마리를 오픈 밴드 양쪽에 담은 투 버터플라이 비트윈 더 핑거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스카이 블루·런던 블루 토파즈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유기적 형태로 배치한 드롭 스타일의 누도 이어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0030-8321-0441.



타원형 옐로 골드에 골드 비즈와 라운드 다이아몬드 16개로 벨 마리를 형상화한 드롭 모티브를 더해 화려하게 완성한 세팅 보헤م 빈티지 옐로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부쉐론** 080-822-0250.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미모사에서 영감을 얻었다. 다이아몬드로 구조적인 꽃의 실루엣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중앙에 루비를 더한 미모사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515-1924.



샤넬 N°5 향수 보틀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코닉한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레드 다이얼과 벨벳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주어 특별하게 완성한 프리미에르 리본 레드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080-805-9628.



특유의 소재 플레이와 색깔을 엿볼 수 있는 원 클릭 조이풀 컬렉션 워치. 지름 33mm 스틸 케이스에 36개의 그린 차보라이트를 세팅한 베젤을 장착하고, 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빅뱅 원 클릭 조이풀 스틸 애플 그린 2천만원대 워치로 02-540-1356.



올해 신제품으로 새로운 컬러감을 더해 신선함을 주는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버. 지름 4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메가 테프스리 무늬 블랙 다이얼을 매치하고, 0-15분 영역에 터키즈 색상의 회전식 내부 베젤을 장착해 산뜻함을 선사한다. 셀프 와인딩 칼리버 4308로 구동한다. 4천8백44만원 오데마 피게 02-543-2999.



올해 워치스 & 워터에서 처음 선보인 타임피스로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아이코닉한 컬렉션. 그레이드 5 티타늄에 솔리드 18K 5N 로즈 골드 디테일을 가미해 고급스러운 세련미가 돋보인다.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TH20-11로 구동하며 8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천8백44만원 태그호이어 02-3479-6021.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지름 41mm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이 매력적인 아이코닉한 크로노그래프 워치. 자체 제작 69385 칼리버로 구동하는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1천1백40만원 IWC 1877-4315. 지름 47x28.3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전레이 라커 처리한 블루 다이얼, 슈랑 드 페르미트 트랙, 사다리꼴 아플리케 인덱스로 완성한 리베르스 트리뷰트 듀오메이스 스를 세컨즈 4천2백만원 예거 르쿨트르 1877-4201. 플리츠 패턴 다이얼과 18K 골드 아라비아숫자 등 오토 쿼터리치 우아함을 담은 디자인의 워치로 지름 35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1088 매뉴팩처 칼리버로 작동하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예제리 셀프 와인딩 5천7백50만원 바세론 콘스탄틴 1877-4306. 지름 34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오발린 다이얼과 상징적인 로마숫자 디테일 모티프, 아름다운 문페이스 인디케이터로 완성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의 아틀라스 문페이스 워치 가격 미정 티파니 1670-1837. 브랜드 시그니처 여성 워치 컬렉션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머더오브월 다이얼에 베젤 역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지름 33.7mm에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레이디버드 컴플리트 켈린더 4천6백만원대 불랑팡 02-3479-1833. 화이트 골드 소재의 지름 40mm 케이스를 웨이브 패턴으로 장식한 블루 다이얼, B 미니셀 크라운 등 아이코닉한 디테일을 곳곳에 담은 마린 5517 5천만원대 브레게 02-6905-3571. METAS에서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투 핸드 워치로, 풀리싱 및 브러싱 처리한 O-메가스틸(O-Megasteel) 소재의 39mm 모델. 각면 처리한 도그-레그 러그와 깔끔한 컷의 베젤이 돋보이며, 요한 실버 컬러 다이얼로 완성한 컨스텔레이션 옵저버토리 1천5백만원대 오메가 02-6905-3301.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채로운 컬러 비즈와 시퀀으로 장식한 내부 디자인이 유쾌한 맛을 더한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갖춘 숄더가죽 소재 피카부 아이씨유 스몰 백 26×20×10cm, 9백만원대 **펜디** 02-544-1925. 비정형적인 패턴의 테피스트리를 담은 헤이븐 물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리넨 위에 비즈 장식의 꽃을 수놓은 드베인 엠브로이더리 숄더백 24×13×2cm, 4백83만원 **발렌티노** **가리바니** 02-2014-4655.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제작했으며, 핑크 컬러의 비세토스 모노그램 패턴이 특징인 아렌 비세토스 레더 믹스 베너티 케이스 19×11×6cm, 95만원 **MCM** 1600-1976. 서정적인 해안의 분위기를 표현한 실크 소재 일 수오노 델 마레 스카프 90×90cm,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02-6200-7799. 봄여름에 제격인 스트라이프 패턴의 크로세 체인 클러치 16×11×7cm, 가격 미정 **샤넬** 080-805-9628. 실크 스카프를 레이어드한 듯 유니크한 디자인의 톤 트리올프 백 17×14×6.5cm, 6백50만원 **셀린노** 1577-8841.



(왼쪽부터 차례대로)
 브라운 그레데이션 렌즈와 라운드 프레임으로 완성한 서머 선글라스 가격 미정 **프라다** 02-3442-1831. 볼드한 보잉 스타일의 렌웨이 선글라스 가격 미정 **미우미우** 02-541-7443.

체인 스트랩과 브랜드를 상징하는 까나쥬 패턴이 어우러진 샌드 매크로 까나쥬 크린치 백 38×28×2cm, 가격 미정 **디올** 02-3280-0104.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밥티스트 비로(Baptiste Viro)가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컬러와 감성으로 라스본, 네바다, 브뤼셀 등 세계 각지를 염색으로 그려냈다. 실크 소재 온 에 비앵 이세 스카프 90×90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02-542-6622.



블랙 캔버스와 화이트 크로커다일 레더가 모던하게 조화를 이루는 스쿼어 토 디테일 슬링백 핑프스 1백27만원 **토즈** 02-3438-6008.

조형사 하미드 메라타-카사니가 탄생시킨 향수로, 1900년대 초 아티스트 존 홀 소프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 데이지와 아네모네, 카네이션, 스위트 윌리엄 등 다양한 꽃이 활짝 핀 무성한 초원의 풍경을 담은 타나 메도우 100ml, 45만원
리버티 뷰티 080-363-5454.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한 콤팩트 파운데이션으로, 하루 종일 피부를 편안하게 하며 은은한 광채와 매트 피니시를 선사하는 에끌라 프리미에 브라이트 콤팩트 파운데이션 12g, 11만5천원
샤넬 080-805-9638.



해 질 녘의 온기와 변화무쌍한 빛, 형언할 수 없는 황금빛 색채 같은 지중해 석양에 어린 여운을 담은 2026 S/S 리미티드 컬렉션의 립스틱. 선명함과 따스한 깊이가 교차하는 컬러 조합이 인상적인 루즈 에르메스 새틴 립스틱 60 로즈 방갈로 3.5g, 11만5천원
에르메스 뷰티 02-310-5174.



피부 진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표 원료인 베타인, 제주에 구축한 리만팜에서 재배하는 헤리티지 원료 자이언트 베타인™과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성분 용암베타인수™를 함유해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고 광채를 부여하는 ICD 더마톨로지 부스터 130ml, 가격 미정
인셀덤 1522-814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과 다양한 소재의 감각을 담은 레 조 컬렉션의 향수로 베르가모트와 오렌지 플로레싱, 아몬드 어크드가 열린 창문 사이로 흘러드는 하얀 코튼 커튼을 연상시키는 라르 & 라 마티에르 레 조 컬렉션 오 드 코트 100ml, 35만원 **겔랑** 080-343-9500.
 2단 구조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캡을 누르는 순간, 두 가지 활성 성분이 결합되어 세포 노화에 대응하며 젊고 윤기 있는 광채 피부로 가꿔주는 블랙 로즈 컨센트레이트 래디언트 유스 세럼 30ml, 38만원 **시슬리** 080-549-0216.
 립 케어와 반사광을 결합해 글로스를 새롭게 해석한 제품으로 입술에 블렌딩되어 세련된 광택과 24시간 보습을 제공하는 프라다 리플렉션 글로시 리퀴드 밤 U000-유니버설 8ml, 6만5천원 **프라다 뷰티** 080-522-7199.
 90% 자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된 포플러에 미스 디올 라인의 시그니처 성분인 설타폴리아 로즈 워터를 담은 보디 크림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즉각적인 편안함을 선사하는 NEW 미스 디올 컴포팅 바디 크림 150ml, 14만5천원대 **크리스찬 디올 뷰티** 080-342-9500.
 복숭아, 자두, 민다린이 어우러진 싱콤한 톨 노트에 카다멈이 생기를 더하며 일랑일랑, 로즈, 투베로즈, 카네이션이 향을 풍성하게 하고 은은한 바닐라 향이 감도는 우디 베이스로 깊이와 신비스러움을 추가한 레 클래식 컬렉션 쟈 EDP 100ml, 42만7천원대 **반클레프 아펠** 080-550-0010.
 크리스탈이 지난 투명함과 밀도를 연상시키며, 공간을 채우는 존재감과 깊고 중독적인 진함으로 감각적 분위기를 완성하는 바카라 루주 540 EDP 70ml, 46만7천원 **매종 프란시스 커징** 1644-4490.
 엠보싱 처리한 모노그램 모티프, 메탈릭 액센트가 돋보이는 LV 옴브르 콤팩트 케이스가 고급스러움을 부여하는 LV 옴브르 아이세도우 350 대즐링 게이즈 5g, 가격 미정 **라 보떼 뷰티 비통** 02-3432-1584
에디터 **성정민, 김하얀**



Editor's Pick

완연한 봄 날씨에 어울리는 향수부터 피부의 겉과 속을 채워줄 스킨케어,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과 산뜻한 마무리를 더하는 치약까지. 편집부 에디터가 엄선한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NEW LIPSTICK

겔랑 키스키스 허니 인텐스 매트 립스틱 #357 스위트 코스모스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가볍게 밀착되며 들뜸 없이 매끈한 입술로 완성한다. 한 번의 터치로 선명한 컬러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 1.85g 5만9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김하얀



리주란코스메틱 힐러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연어 DNA에서 추출한 고순도 PDRN 성분인 c-PDRN과 n-PDRN을 함께 담아, 건조해진 피부에 영양을 채우고 탄력을 부여한다. 30ml 5만9천원. 문의 031-8039-1500 .by 에디터 신정임



랑콤 레네르지 콜라겐 리프트 익스텐드 크림 존속하고 얇은 실처럼 늘어나는 제형의 콜라겐 크림. 콜라겐 복합체를 함유한 포몰러가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며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50ml 16만9천원. 문의 080-022-3332 .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립 세럼 리미티드 에디션 망드로 끈적임 없이 가볍게 립 케어를 도우며, 투명하고 영롱한 케이스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11ml 7만2천원. 문의 080-805-9638 .by 에디터 성정민



SUN PROTECTION

플레드보 보메 2026 기프트 컬렉션 UV 프로텍티브 크림 N SPF 50+ PA+++ 가볍게 수분감만 남겨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피부 노화 징후까지 케어해주는 안심 자외선 차단제 50ml 16만5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성정민



로에베 아이레 수틸레사 엘릭시르 오 드 퍼퓸 에센셜 오일 농도를 높여 더욱 깊고 풍부하며, 플로럴·프루티·머스크 향이 어우러져 싱그러움 숨을 연상시킨다. 100ml 42만3천원. 문의 02-2088-8587 .by 에디터 김하얀

크리스찬 디올 뷰티 썸머 메이크업 컬렉션 디올 포에버 글로우 루미나이어 #003 선 키스드 은은하게 반짝이는 진주빛 마이크로 피그먼트가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더한다. 가나슈 패턴 위 데이지 장식과 무당벌레 디테일이 소장 가치를 높인다. 6g 10만6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신정임



FRESH PASTE

로다움프롬씨 와일드파이어 자스민 민트 적당한 쿨링감과 은은한 자스민 향이 상쾌함을 더하고, 향이 강한 음식을 먹은 뒤에도 개운함이 오래 지속되는 치약. 100g 1만1천원. 문의 02-6949-3442 .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달바 비타 콜라겐 모공 탄력 딥 클렌징 밤 부드럽게 녹아드는 젤링 밤 제형으로 블랙헤드와 피지 등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한다.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 인증을 받아 모든 피부 타입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50ml 5만2천원. 문의 02-332-7727 .by 에디터 신정임

* 상정금액(판매처 기준), 사용량(20대 부화형), 코지현(20대 지형)



1 루이 비통 LV 버티소프트 스니커즈 루이 비통이 BTS 월드 투어에 나서는 제이홉을 위해 맞춤 제작한 LV 버티소프트 스니커즈를 선보였다. 트랙 러닝슈즈에서 영감을 받은 가볍고 유연한 착용감을 바탕으로, 캡슐 컬렉션 전용 로고와 제이홉의 메시지 'Your, My Hope'를 새긴 레이스 등 브랜드와 아티스트를 상징하는 디테일을 균형 있게 담았다. 문의 02-3432-1854

2 포멜라토 팝업 부티크 오픈 포멜라토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2층에 새로운 팝업 부티크를 오픈했다. 토프 컬러의 파사드와 러스트 레드 톤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며 아늑하고 따스한 감성을 전한다. 형형색색의 '누도'부터 정교한 '이코니카'까지 메종의 대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030-8321-0441

3 에르메스 에르메스 컷 에르메스가 매끄러운 원형 실루엣과 세틴 및 폴리스 마감 케이스가 돋보이는 '에르메스 컷(Herm s Cut)' 위치를 제안한다. 메뉴팩처 무브먼트 H1912로 구동하며, 1시 30분 방향에 배치된 크라운은 래커 마감과 인그레이빙 디테일이 특징이다. 문의 02-542-6622

4 위블로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 위블로가 빅뱅 컬렉션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빅뱅 임팩트 원 밀리언'을 선보이며 오프 온라인과 하이 주얼리의 경계를 확장했다. 총 44.6캐럿에 달하는 약 5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센트럴 플라잉 투르비용을 중심으로 소용돌이 형태로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핸드 와인딩 HUB9015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540-1356

5 부쉐론 세뽕 보헨 컬렉션 부쉐론이 세뽕 보헨(Serpent Boh me)의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옐로 골드와 오키스를 포함한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특

Showroom



히 오키스는 '어둠'을 표현하는 요소로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한다. 문의 080-822-0250

6 IWC 샤프하우젠 IWC X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몰러 원™ 팀 IWC가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몰러 원™ 팀을 위해 처음 선보인 공식 팀 워치,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포몰러 원™ 팀 에디션. 내구성이 뛰어난 5등급 티타늄으로 제작한 41mm 케이스는 우수한 비강도를 갖추고 있으며, 자체 제작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69385 칼리버로 구동한다. 양방향 폴 와인딩 시스템을 통해 약 4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1877-3415

7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 영국 하이 주얼리 메종, 그라프에서 새로운 버터플라이 컬렉션을 제안한다.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을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와 파베 스톤을 세팅해 화려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부여한다. 문의 02-2150-2320

8 랑방컬렉션 까레 방드 백 미디움 랑방컬렉션이 내추럴 텍스처에 메탈사 스트라이프가 돋보이는 '까레 방드 백'을 선보였다. 면과 리넨 혼방 소재로 제작해 가볍고 탄탄한 실루엣을 유지하며, 하단에 더한 가죽 디테일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강화했다. 문의 1800-5700

9 샤넬 뷰티 레 베뉴 코스탈 썸머 컬렉션 샤넬 뷰티가 여름 해변처럼 빛나는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받은 '레 베뉴 코스탈 썸머 컬렉션'을 선보였다. 자연스러운 수분 광채를 더하는 쿠션과 생기 있는 컬러의 블러셔 등으로 구성해, 바다처럼 시원하고 싱그러움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10 발리 스트라이프 우먼 골프 슈즈 발리가 2026 S/S 시즌을 맞아 시그니처 레드·화



이트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트라이프 우먼 골프 슈즈'를 선보였다. 두께감 있는 밑창으로 쿠션감과 지지력을 강화해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스파이크리스 구조로 골프 코스는 물론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하다. 문의 02-2163-1122

11 티파니앤코 로지 헌팅턴 휘틀리와 함께한 캠페인 공개 티파니앤코가 영화배우이자 모델 로지 헌팅턴 휘틀리와 함께한 (Celebrating Mothers Since 1837)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서는 어머니와 딸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주얼리가 상징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관계를 조명한다. 문의 1670-1837

12 키린 울루 미니 솔리테어 네크리스 키린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울루 미니 솔리테어 네크리스'를 선보였다. 미니멀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이 네크리스는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도 출시했으며, 움직임에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록에 포인트를 주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02-310-5189



HardWear by Tiffany

사랑, 강인한 내면의 힘



Tiffany.kr | © 2026 T&CO.

With Love, Since 1837 **TIFFANY & CO.**